

과총 '97과학기술인신년인사회 성황

李壽成총리 “21세기대비 과학기술혁신 노력”강조 각계 인사 4백여명 참석, 제2회 한국공학상 시상도



▲ 科總주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權舜赫 성균관대이사장, 金東一 과총상임고문, 閔寬植 과총명예회장, 崔亨燮 과총회장, 李壽成 국무총리, 金容鎮 과기처장관, 朴泰源 한국과학기술원이사장, 趙完圭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李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이사장, 李宗勳 한전사장, 金始中 광주과학기술원이사장, 李祥義국회의원,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1997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1월 7일 오후 5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 金容鎮과학기술처장관, 崔亨燮科總회장, 閔寬植蘇總명예회장 등 관계부처 및 원로·중진 과학기술인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李壽成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일년간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몫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壽成총리는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화와 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21세기 세계 인류국가에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비상하는데 바탕이 될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과학기술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崔亨燮과총회장은 개회인사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도약과 단합을 기약해야겠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의 구심체인 과총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제고를 목표로 학술 발전, 과학기술의 국제화, 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풍토조성과 전국민의 과학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韓榮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李富植과기처차관,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權舜赫성균관대이사장, 朴辰好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과 金基衡 李寬 李台燮 朴肯植 金始中과기처장관, 鄭助英원자력협력담당대사, 安京模전교통부장관, 成樂正한화그룹총괄부회장, 朴泰源한국과학기술원이사장, 鮮于仲皓서울대총장, 張裳이화여대총장, 韓鏞徹삼성의료원원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와 국회 李祥義 李應善 金秉泰·金善吉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李壽成국무총리는 과학기술처가 구랍 28일 발표한 제2회 한국공학상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원 張虎男교수(53)에 대한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과 상금 5천만원을 수여했다.

장교수는 미생물세포의 재순환에 의한 세포의 고농도를 유지시키는 막(膜) 재순환 반응기를 고안·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재조합대장균의 고농도 배양에 중요한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는 등 국내 생물화학공정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